

동동의 선어(仙語) 및 난해구 재해석

신재홍*

— <차 례> —

1. 서 론
2. 화랑, 국선, 선
 - 1) 화랑과 국선의 관계
 - 2) 고려 시대의 국선, 선랑, 선가
3. 화랑의 활동상과 <동동>
 - 1) 화랑의 활동 양상
 - 2) <동동>과의 관련성
4. <동동> 난해구 해석과 선어의 이해
5. 결 론

<국문초록>

『고려사』 악지에서 <동동>을 두고 언급한 ‘선어’를 어떻게 보느냐가 <동동>의 성격 및 내용 파악에 관건이 된다. 본고는 신라 이래의 화랑, 국선, 선 등과의 관련 하에 파악한 기존 관점에 향가에서 고려 가요로 이어지는 시가사적 관점을 보태어 선어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여러 문헌에 혼동되어 쓰인 화랑, 국선, 선 등의 용어에 대해 『화랑세기』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신라 고유의 선도를 담당한 선의 무리가 있었고 그 수장인 선화가 국선과 유사한 말로 쓰이다가 제도 창설 후 화랑과 풍월주가 공식어가 되었다. 진지왕대에 화랑이 국선으로 잠시 바뀌었다가 신문왕대 이후에는 화랑 대신 국선으로 계승되어 신라 말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고려 시대에 사용된 화랑 관련 용어도 살펴서 13세기 말까지는 화랑의 풍속이 지속되었고 고려인은 주로 문화 활동의 면에서 화랑이나 국선을 상기하였음을 밝혔다.

이렇게 볼 때, ‘선어’는 신라 이래 고려 후기까지 이어진 화랑의 풍속, 그에 따른 문화사적 의미가 내포된 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화랑의 활동상과 결부하여 <동

* 가천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동>의 선어에 담긴 의미를 추출하였다. 첫째, 세시 풍속을 배경으로 한 정서 표현, 둘째, 명절 음식과 보약을 통한 장수 기원, 셋째, 순환적 세계관에 따른 송축과 그리움, 넷째, 향가의 율격과 형식의 일정한 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한편, 어석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구절을 재해석하여 <동동>의 주제 및 구성이 지닌 개인 서정시로서의 성격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므슴다’(무슨 탓), ‘錄事’(문하녹사), ‘새서’(초가지붕), ‘브룻’(화살나무), ‘두퍼 누워’(덮어 놓아), ‘소니 가재다’(손이 나란히 한 탓) 등을 다시 해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동동>이 여성 화자가 촉망받는 녹사 벼슬의 님을 그리워하여 모시고 싶지만 결국 님 앞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심정을 1월~12월령에 걸쳐 토로한 작품임을 보여 주었다.

요컨대, <동동>의 선어란 신라 이래의 화랑, 국선, 선의 말이라는 뜻으로서, 화랑이 주 담당층인 향가의 영향 아래 지어진 개인 서정시라는 점을 지적한 용어라고 하겠다.

주제어 선어, 화랑, 국선, 세시 풍속, 어구 재해석, 개인 서정시

1. 서론

<동동(動動)>은 월령체(月令體)의 형식, 님에 대한 사랑과 송축의 주제, 구절마다 애절한 어조, 그윽한 작품 분위기 등으로 인해 고려 가요 중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궁중 악으로 편입되기 전에는 민간에서 불린 월령체의 민요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렇지만 시적 화자가 1월령에서 12월령까지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각 월령의 주제도 구구절절이 사적인 감정을 토로한다는 점에서 개인 창작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동동>의 이해에 중요한 단서가 된 것이 『고려사』 권71, 악2, 「동동」

의 ‘其歌詞 多有頌禱之詞 蓋效仙語而爲之’라는 기록이다. 작품의 전반적인 성격을 송도(頌禱)의 노래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사 속에 님을 송축하는 말이 많다는 점에서 수궁이 간다. 문제는 그 뒤에 이어진, ‘선어(仙語)를 본받아 지었다.’는 구절이다. 선어가 무엇을 뜻하는지가 논란의 초점인데, 해석 여하에 따라 작품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

선어에 대한 이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신라 이래의 화랑, 국선, 선랑, 풍류, 팔관회 등에 연원을 둔 무속과 같은 고유문화의 연장에서 이해하는 관점,¹⁾ 둘째, <자하동(紫霞洞)>에 대해서도 같은 용어가 사용된 점과 신선 모티프가 당대의 한문 노래에 널리 나타나는 점 등을 들어 중국 전래 도교 사상과의 관련하에 이해하는 관점,²⁾ 셋째, 신선이라는 말의 용례 중 어떤 점을 부각시켜 ‘경망하다’ 혹은 ‘기녀’의 뜻으로 보거나, 도교 음악의 소(嘯)와 결부시켜 노랫말이 없는 구음으로 보는 등 다소 특이하게 이해하는 관점이다.³⁾

주된 연구 경향은 첫째 관점에 있지만, 화랑, 국선과 같은 정치·사회·문화적 제도를 풍속 혹은 신앙의 차원에서 무속과 연관 짓는 데에 머

-
- 1) 최진원, 『국문학과 자연』, 증보판; 성균관대출판부, 1981, 151쪽; 김명호, 『고려가요의 전반적 성격』, 『한국서사문학연구』, 신구문화사, 1983, 77쪽 각주21; 박혜숙, 『동동의 님에 대한 일고찰』, 『국문학연구』 10집, 효성여대, 1987, 87쪽; 최미정, 『죽은 님을 위한 노래—동동』, 『고려가요·악장연구』, 태학사, 1997, 290쪽; 허남춘, 『궁중악과 송도』, 앞의 책, 43쪽; 엄국현, 『동동 연구』, 『인제논총』 13집, 인제대, 1997, 48쪽; 신은경, 『동동의 형성과정 및 작자층에 대한 재검토』, 『국어국문학』 123집, 국어국문학회, 1999, 52쪽.
 - 2) 조규익, 『송도 모티프의 연원과 전개양상』, 『고전문학연구』 32집, 2007, 46쪽; 황병익, 『동동 송도지사 개효선어의 의미 고찰』, 『고전문학연구』 37집, 한국고전문학회, 2010, 49쪽.
 - 3) 임기중, 『고려가요 동동고』, 『고려가요연구』, 정음문화사, 1984, 371쪽; 안동준, 『고려 노래 '선어'와 민간전승 도교음악』, 『배달말』 29집, 배달말학회, 2001, 177쪽; 이영태, 『동동의 송도와 선어』, 『민족문학사연구』 36집, 민족문학사학회, 2008, 17쪽.

물고 있다. 그리하여 <동동>의 전반적인 성격을 지적한 선어라는 말을 막연히 고유문화의 전통과 관련된 용어로 이해하고 말았다. 전편에 걸쳐 사랑과 그리움의 주제를 드러내는 이 작품과 화랑, 국선, 무속 등을 함께 엮어 보기가 어려운 관계로 아예 서사만을 지적한 말로 선을 긋기도 하였다.⁴⁾ 그러나 선어의 이해는 작품 전체와의 관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원문 해독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서 그에 대한 해석을 병행하면서 선어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첫째 관점에다가 제도적, 문화적인 내용을 채워 넣고, 향가의 영향하에 고려 가요가 형성, 발전했다는 시가사적 관점을 더하여 <동동>의 선어 및 난해구에 접근하고자 한다. 현존 작품을 놓고 보면 향가의 주된 작가층은 화랑이다. 화랑의 활동을 배경으로 한 <혜성가>, <모죽지랑가>, <처용가>, 낭승인 월명과 충담이 지은 <제망매가>, <도술가>, <찬기파랑가>, <안민가> 등을 고려하면 이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신라 시대 화랑은 국선으로도 불렸고, 선(仙)이라는 말에는 다분히 신라 고유문화의 의미가 들어 있다. 고려 시대에도 화랑, 국선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동동>의 선어는 향가, 화랑, 국선, 선 등과의 관련 속에서 파악해야 할 말로 생각된다. 기존의 첫째 관점도 여기서 출발했으나 주술, 무속 등으로 기움으로써 구체적 제도로서의 화랑 및 화랑상, 구체적 문학 양식으로서의 향가와 관련짓는 데에서 멀어졌다.

이에 선어의 '선'을 신라에서 고려로 이어진 화랑 및 향가의 전통 아래 살펴보고 작품의 난해구에 대해 본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가사적인 맥락에서 <동동>을 다시 논해 보고자 한다.

4) 이해구, 「고려의 동동과 돈황곡 십이월상사」, 『한국음악서설』, 4판; 서울대출판부, 1982, 123쪽.

2. 화랑, 국선, 선

1) 화랑과 국선의 관계

화랑과 국선은 밀접하게 관련된 말이다. 김유신의 소년 시절에 대해 ‘15세에 화랑이 되었다.’ 혹은 ‘18세 임신년에 검술을 닦아 국선이 되었다.’⁵⁾고 하였고, 백운에 대해서도 ‘진평왕 때 백운이 14세에 국선이 되었다. 당시 사람들이 화랑을 국선이라 했다.’⁶⁾고 하여 화랑과 국선이 혼용되었다. 미륵선화에 관한 기록에서 [원화를] 고쳐 화랑으로 삼도록 하였다. 처음으로 설원랑을 받들어 국선으로 삼으니 이것이 화랑국선의 시초이다.…… 왕이 미시랑을 경애하여 국선으로 받들었다.……지금도 나라 사람들이 신선을 일컬어 미륵선화라고 한다.’⁷⁾고 하여 화랑과 국선을 한 말로 묶거나 신선과 미륵선화를 같은 말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고려에서 조선 전기에 걸쳐 나온 사서들에서 화랑과 국선을 혼동 혹은 동일시하였다.

여러 사서에 나오는 화랑(풍월주)과 국선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⁸⁾

화랑: 화랑 성립(진흥왕 37년⁹⁾ / 법흥왕 원년¹⁰⁾ 풍월주 성립(진흥왕 원

5) 『삼국사기』 41권, 열전, 「김유신 상」, 公年十五歲爲花郎; 『삼국유사』 1권, 기이 제1, 「김유신」, 年至十八壬申 修劍得術爲國仙.

6) 『대동운부군옥』 5권, 하평성, 1. 「선(先)」, 國仙: 眞平王時 白雲年十四 爲國仙 時人以花郎爲國仙.

7) 『삼국유사』 3권, 탐상 제4, 「미륵선화 미시랑 진자사」, 改爲花郎 始奉薛原郎爲國仙 此花郎國仙之始……王敬愛之 奉爲國仙……至今國人稱神仙曰彌勒仙花.

8) 효종랑, 처용랑처럼 사람 이름에 ‘랑’이 붙은 예들도 있는데, 그것이 화랑인지 국선인지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9) 『삼국사기』 4권, 신라본기, 「진흥왕 37년」, 更取美貌男子 粧飾之 名花郎以奉之; 『삼국사절요』 7권, 명신, 「진흥왕 37년」, 春 新羅置花郎.

10) 『신증동국여지승람』 21권, 경상도 「경주부, 풍속」, 風月主·花郎: 法興王元年 選童男容儀端正者 號風月主.

년¹¹⁾ / 법흥왕 원년¹²⁾ 사다함(진흥왕대), 유신(진평왕대), 흠춘(순)(진평왕대), 근랑(진평왕대), 거열랑·실(돌)처랑·보동랑(진평왕대), 문노·흠운(태종무열왕대 이전), 관창(태종무열왕대 이전)¹³⁾

국선: 유신(진평왕대), 백운(진평왕대), 구참공(진평왕대), 부례랑(효소왕대), 응림(경문왕)(경문왕대 이전), 요원랑·예혼랑·계원·숙종랑(경문왕대)¹⁴⁾

위에서 보듯이 진평왕대는 화랑과 국선이 함께 나오다가 효소왕대 이후 국선이 주로 나온다. 또한 화랑 혹은 풍월주의 성립 시기에 대해 세 가지 설이 있다. 그중 진흥왕 37년 설은 사다함의 존재로 인해 의문이다.

한편, 선이라는 용어도 나타난다. 최치원의 『난랑비 서』에는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라고 한다. 교리를 설명하는 원천은 『선사』에 상세히 갖추어져 있다.’¹⁵⁾고 하였다. ‘원화를 받들어 선랑을 삼았다.’¹⁶⁾고도 했

11) 『삼국사절요』 6권, 경신, 「진흥왕 원년」, 新羅王 選容儀端正童男 號風月主.

12) 『대동운부군옥』 10권, 상성, 7. 「우(虞)」, 風月主: 法興王元年 選童男儀容端正者 號風月主.

13) 『삼국사기』 44권, 열전, 「사다함」, 人請奉爲花郎; 같은 책 41권, 열전, 「김유신 상」, 公年十五歲爲花郎; 같은 책 47권, 열전, 「김영운」, 祖欽春-或云欽純-一角干 眞平王時花郎; 같은 책 48권, 열전, 「검군」, 時大日伊滄之子 爲花郎 號近郎; 『삼국유사』 5권, 감통 제7, 「응천사 혜성가 진평왕대」, 第五居烈郎 第六實處郎——作 突處郎——第七寶同郎等 三花之徒 欲遊楓岳; 『삼국사기』 47권, 열전, 「김흠운」, 歆運少遊花郎文弩之門; 같은 곳, 「관창」, 少而爲花郎.

14) 『삼국유사』 1권, 기이 제1, 「김유신」, 年至十八壬申 修劍得術爲國仙; 같은 책 4권, 의해, 「이혜동진」, 時國仙瞿岳公 嘗往其郊縱獵; 『대동운부군옥』 5권, 하평성, 1. 「선(先)」, 國仙: 眞平王時 白雲年十四 爲國仙; 『삼국유사』 3권, 탐상 제4, 「백률사」, 孝昭王奉大玄薩浪之子 夫禮郎爲國仙; 같은 책 2권, 기이 제2, 「사십팔 경문대왕」, 王諱膺廉 年十八爲國仙……國仙邀元郎譽昕郎桂元叔宗郎等 遊覽金蘭.

15) 『삼국사기』 4권, 신라본기, 「진흥왕 37년」, 崔致遠鸞郎碑序曰 國有玄妙之道 曰風流 說教之源 備詳仙史.

16) 『해동고승전』 1권, 유통, 「법운」, 三十七年 始奉原花爲仙郎.

으며, 동해안의 유명한 정자, 호수를 소개하며 ‘사선, 선도(仙徒, 선인)’ 등으로 영랑, 술랑의 무리를 칭하기도 하였다.¹⁷⁾ 사선의 일원인 영랑과 술랑은 효소왕대 국선 부레랑과 동시대의 인물이다.

이처럼 기존 사서에서 화랑, 국선, 풍월주, 화랑국선, 미륵선화, 선랑, 선도, 선 등의 용어가 혼용된 데 비해 『화랑세기』에는 상당히 정리되어 쓰이고 있다.

화랑은 선의 무리이다. 우리나라는 신궁을 받들어 하늘에 큰제사를 지냈으니 연나라의 동산, 노나라의 태산과 같은 것이다. 예전에 연 부인이 선의 무리를 좋아하여 미인을 많이 길렀는데 그들을 국화라고 하였다. 그 기풍이 동쪽으로 전해져 우리나라는 여자로써 원화를 삼았더니, 지소 태후가 폐지하고 화랑을 두어 나라 사람들이 받들도록 하였다. 이에 앞서 법흥 대왕이 위화랑을 사랑하여 ‘화랑’이라고 불렀는데 화랑의 명칭은 여기서 비롯하였다. 옛날에 선의 무리는 단지 신을 받드는 일을 주로 했으나 국공들이 반열에 들어 거행한 후로는 선의 무리가 도의로써 서로 권면하였다.¹⁸⁾

신라 국초부터 신을 받드는 일을 담당한 선의 무리가 있었고, 진흥왕의 어머니 지소 태후가 위화랑의 애칭을 따서 화랑을 설치하였고, 화랑 성립 이후 국공의 참여로 선의 무리가 봉신과 함께 도의를 닦았다는 것이다.

17) 『파한집』 중권, 金蘭境有寒松亭 昔四仙所遊 其徒三千 各種一株 至今蒼蒼然拂雲; 『신증동국여지승람』 44권, 강원도, 『강릉대도호부 누정』, 寒松亭……亭畔有茶泉石竈石臼 卽述郎仙徒 所遊處; 같은 책 45권, 강원도, 『평해군 누정』, 越松亭……諺傳 新羅仙人 述郎等 遊憩于此; 같은 곳, 『간성군 산천』, 永郎湖……有古亭基 是永郎仙徒 遊賞之地.

18) 『화랑세기』, 『서문』, 花郎者 仙徒也 我國奉神宮 行大祭于天 如燕之桐山 魯之泰山也 昔燕夫人好仙徒 多畜美人 名曰國花 其風東漸 我國以女子爲源花 只召太后廢之 置花郎 使國人奉之 先是法興大王愛魏花郎 名曰花郎之名始此 古者仙徒只以奉神爲主 國公列行之後 仙徒以道義相勉.

이에 따르면, 기존 사서에서 서로 어긋났던 화랑 설치 시기는 진흥왕 원년(540)이 되고, 선은 신공을 받들어 하늘에 제사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화랑과 풍월주, 국선과 선도·화랑의 관계도 명확히 규정되었다. 선화를 화랑으로 삼고 화랑의 무리를 풍월도, 그 수장을 풍월주라고 하였다.¹⁹⁾ 사다함의 경우, 『삼국사기』 「열전」에는 사람들이 화랑으로 받들었다고 했는데, 『화랑세기』에는 그가 이미 국선이 될 만한 인물로 평판이 났고, 그런 후에 제5대 풍월주가 되었다고 하였다.²⁰⁾ 선도의 수장인 선화가 국선과 상통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진흥왕 원년에 창설된 화랑 제도는 계속되는데, 진흥왕이 붕하고 진지왕이 올립된 직후 정치 세력의 변동 속에 일시적으로 화랑이 국선으로 바뀐다. 이때 문노가 국선이 되었다.²¹⁾ 그런데 진지왕이 3년 만에 폐위된 다음에는 국선이었던 문노가 미실, 설원의 추대로 제8대 풍월주로 취임한다. 그리하여 선화라는 말이 문노와 같이 국선이면서 화랑인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다.²²⁾ 미륵선화는 선화의 이러한 의미 변화 속에 나온 말이다. 문노의 전임 풍월주였던 설원은 선화의 시초라고 일컬어지고, 또 말년에 불교에 귀의하여 미륵선화라고 칭해졌다.²³⁾

이는 『삼국유사』 「미륵선화 미시랑 진자사」의 다음 기록과 상응한다.

19) 위의 책, 제2세 「미진부」, 太后乃廢源花 以仙花爲花郎 號其衆曰風月 號其頭曰風月主. 여기서의 선화는 선도의 수장이라는 의미인데, 다음에 보게 될 국선과 화랑의 합일체로서의 선화와는 뜻이 조금 다르다.

20) 위의 책, 제4세 「이화랑」, 公乃奏太后曰 免舍之弟斯多舍 年未免艾 而自有郎徒 殆所謂國仙者乎.

21) 위의 책, 제7세 「설화랑」, 眞興大王崩 美室雖有寵於新主 而未若知道夫人 知道之父起烏公 與文弩爲從兄弟 故知道素服於文弩 乃勸王立文弩爲國仙

22) 위의 책, 제7세 「설화랑」, 文弩以國仙爲花郎之首 故曰仙花.

23) 위의 책, 같은 곳, 贊曰 美室之臣 仙花之始 托于佛門 以令其美; 같은 곳, 薛原既讓位 從美室于永興寺 擇其手徒 出入護之 以爲私臣頭上 後加號彌勒仙花.

처음으로 설원랑을 받들어 국선으로 삼으니 이것이 화랑국선의 시초이다.……『국사』에는 진지왕 대건 8년 경신에 처음으로 화랑을 받들었다고 하였는데, 아마도 사전(史傳)이 잘못되었을 것이다. -24)

화랑국선의 시초라는 것은 국선이면서 화랑인 선화의 시초라는 말이다. 제주에서 중국 연호와 간지가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 화랑 설치 시기를 진흥왕 원년으로 보면 경신은 바로 그 해가 되고, 진흥왕 37년으로 보면 경신(庚申)은 병신(丙申)의 오기가 된다. 또한, 다른 기록에 따라 진지왕 대건 8년 처음으로 화랑을 받들었다는 것은 『화랑세기』에서 진지왕 원년(576)에 문노를 국선으로 세운 것과 일치한다. 일연은 그 기록을 오류라고 했는데, 이는 화랑이 잠시 국선으로 바뀐 사정을 몰랐기 때문이다.²⁵⁾

진지왕대 잠시 국선으로 바뀐 적이 있지만, 이후 화랑은 삼국통일의 과업을 위해 용춘, 유신 등을 중심으로 군사 활동 위주로 나아갔다. 통일 후 신무왕 원년(681) 전임 풍일주 흠돌이 난을 일으킬 때 화랑도가 반군 쪽에 많이 가담함으로써 반란 평정 후 화랑 제도가 혁파된다. 그러나 전통을 잇는다는 취지에서 화랑은 국선을 통해 계승된다.

자의 태후는 화랑을 혁파하도록 명하고 오기공에게 낭도를 적몰하여 모두 병부에 소속시켜 직책을 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방의 낭정은 예전처럼 존립해 있었는데 실직 지방이 가장 성하였다. 얼마 후 그 기풍이 또 왕경안으로 전해 왔다. 중신들이 고품을 갑자기 바꿀 수 없다고 하니 태후가 도를 얻은 자를 국선으로 삼는 것은 허락하였다. 이로부터 화랑의 기풍이 크게

24) 『삼국유사』 3권, 탐상 제4, 『미륵선화 미시랑 진자사』, 始奉薛原郎爲國仙 此花郎國仙之始—國史 眞智王大建八年庚申 始奉花郎 恐史傳乃誤—.

25) 『화랑세기』가 위작일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삼국유사』의 작자가 오류라고 판정하는 이 대목까지 사실로 분석했을까는 의문이다. 적어도 이 대목의 일치는 『화랑세기』의 사료적 가치를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변했다.²⁶⁾

여기서 ‘도를 얻’는다는 것은 곧 신라 전통의 선도(仙道)를 얻는다는 뜻이다. 이로써 화랑과 국선의 관계가 좀 더 명료해졌다. 기존 사서에서 진평왕대에는 화랑과 국선이 함께 나오다가 효소왕대 이후 국선이 주로 나오는 점, 사선으로 대표되는 화랑의 활동이 군사보다 문화 활동에 치중해 있는 점이 이해가 된다. 신문왕대 이후 ‘화랑의 기풍이 크게 변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화랑, 국선, 선 등은 신라의 전통적인 선도를 바탕으로 역사적, 제도적으로 수립, 전개된 일련의 인간 집단 및 그 활동을 지칭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역사적 맥락에서 선도를 담당한 선의 무리가 제일 먼저 있었고, 그들의 수장인 선화가 국선과 유사한 뜻을 지니다가 제도 창설 이후 화랑과 풍월주가 공식적인 용어가 되었다. 진흥왕 원년부터 신문왕 원년까지 지속된 화랑은 진지왕대 잠시 국선이 된 적이 있었고, 신문왕대 이후는 국선으로 바뀌어 신라 말까지 존속하였다. 화랑, 국선, 선 등이 지닌 이러한 역사적 맥락 위에서 고려 가요 <동동>의 선어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고려 시대의 국선, 선랑, 선가

『화랑세기』가 김대문이 쓴 진본이라면, 그 책에 나오는 화랑, 국선, 선화 등의 용어는 신라 시대부터 계속 쓰인 말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선랑, 선가 등은 고려 시대 자료에서 신라 화랑을 지칭하거나 고려 당대

26) 『화랑세기』, 제32세 「신공」, 慈儀太后 命罷花郎 使吳起公 籍郎徒 盡屬兵部 授之以職 雖然地方郎政 依舊自存 悉直最盛 未幾其風 又漸京中 重臣皆以爲 古風不可卒變 太后乃許 以得道爲國仙 花郎之風 於是大變.

에 화랑의 전통을 이은 제도와 관련된 말이다.

이지백이 아뢰었다. “……어찌 선왕의 연등회, 팔관회, 선랑 등의 일을 다시 시행하고 다른 나라의 이상한 술법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나라를 보전하고 태평을 이루는 것만 같겠습니까.”; 제고를 내렸다. ‘……사신의 유적에 마땅히 영예를 더해야 할 것이다.……이른바 국선의 일은 근래 벼슬길로 통하는 문이 많아서 구하는 자가 없다. 마땅히 대관의 자손으로 거행하게 하라.’; 교지를 내렸다. ‘……하나. 선풍을 받들 것이다. 옛적 신라에서 선풍이 크게 행해져 바다와 하늘이 기뻐하고 백성과 만물이 평안하였다. 그리하여 나라 조상들 이래로 그 풍습을 받드는 일이 오래되었다. 근래에 두 서울의 팔관회가 날이 갈수록 예전의 격식이 감하여 유풍이 점점 쇠하였다. 지금부터 팔관회는 양반가의 풍족한 자 중에서 미리 택해 선가(仙家)를 삼아 옛 풍습에 따라 행함으로써 사람과 하늘이 모두 기뻐하는 데 이르도록 하라.’²⁷⁾

이지백의 상소(성종 12년, 993)에서부터 의종의 교지(22년, 1168)에 이르기까지 화랑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취지에서 선랑, 사신, 국선, 선풍, 선가 등이 언급되고 있다. 여기서 대관이나 양반가 자체로써 국선 혹은 선가를 선발한다는 것은 왕족이나 귀족 출신의 화랑을 뽑았던 신라의 전통을 계승한 면모이다. 이는 다음의 예처럼 실제로 행해졌다.

나라의 풍속에 어릴 때 반드시 중을 따라 구두(句讀)를 익혔는데 용모가

27) 『고려사』 94권, 열전, 『서희』, 李知白奏曰……曷若復行 先王燃燈八關仙郎等事 不爲他方異法 以保國家致大乎?; 위의 책 14권, 세가 14, 『예종 11년 4월』, 下制曰……四仙之跡 所宜加榮……所謂國仙之事 比來仕路多門 略無求者 宜令大官子孫 行之; 위의 책 18권, 세가 18, 『의종 22년 3월』, 下教曰……一 遵尙仙風 昔新羅仙風大行 由是龍天歡悅 民物安寧 故祖宗以來 崇尙其風久矣 近來 兩京八關之會 日減舊格 遺風漸衰 自今八關會 預擇兩班家產饒足者 定爲仙家 依行古風 致使人天咸悅.

아름다운 자는 승속에서 모두 받들어 선량이라 일컬었다. 모인 무리가 혹 수백 명에서 천 명에 이르렀다. 그러한 풍속은 신라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적(頓)이 10세에 승사(僧舍)에 가서 배웠는데 성품이 민첩하고 잘 깨달아 책을 받으면 대의를 두루 통했다. 얼굴이 그림 같고 풍모도 빼어나게 아름다워 보는 자마다 사랑하였다. 충렬왕이 그 말을 듣고 궁중으로 불러 보고는 국선으로 지목하였다.²⁸⁾

신라에서 유래한 풍속에 따라 민중유(1245-1324)의 아들 민적(1269-1335)이 국선이 되었다는 것이다. ‘중을 따라 구두를 익혔’다는 것은 충담, 월명, 범교 등의 낭승과 관련되고, ‘무리가 혹 수백 명에서 천 명에 이’른 것도 화랑도 한 무리와 비슷한 인원이며, 왕이 몸소 지목한 것도 화랑의 선발 방식을 계승한 전통이다. 또한 이는 장가들기 전의 귀족 자제를 선량이라 칭했다는²⁹⁾ 12세기 전반의 기록과도 연결된다. 이로 보아 화랑의 풍속은 12세기를 거쳐 13세기 말까지도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민적이 국선이 된 충렬왕대에 이 말이 동반(東班)의 군역과 관련된 용어로도 쓰이고 있다.

충렬왕 8년(1282)……교시하였다. ‘태조의 후손 중에 20명의 여자를 가졌더라도 1호의 예로써 1명만 벼슬에 들도록 허락하라. 이미 관원이 된 자는 빼내어 따로 기록하고 만약 남반이면 동반으로 바꾸고 국선으로는 뽑지 않으며 군대에 있는 자는 군적을 없애라.’³⁰⁾

28) 위의 책 108권, 열전, 『민중유』, 國俗 幼必從僧習句讀 有面首者 僧俗皆奉之 號曰仙郎 聚徒或至千百 其風起自新羅 頓 十歲出就僧舍學 性敏悟受書旋通大義 眉宇如畫 風儀秀雅 見者皆愛之 忠烈王聞之 召見宮中 目爲國仙.

29) 『고려도경』 21권, 『조예』, 大抵皆未娶之人 在貴家子弟 則稱仙郎.

30) 『고려사』 75권, 지 29, 선거 3 전주, 『서조종묘예』, 忠烈王八年……教 聖祖苗裔 雖挾二十女 一戶例 許一名入仕 已爲員者 政抄別錄 若在南班 改東班 勿差國仙 在

태조 후손에게 벼슬을 주는 데 있어 국선으로는 뽑지 말라는 것이다.³¹⁾ 전후 문맥상 여기서의 국선은 동반의 군역에 해당하는바,³²⁾ 애초 신라 때 부터 국선이 군사적 활동을 했던 것을 감안하면 그 전통이 이어진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민적의 국선 선발과는 성격이 다른 음서 제도의 일종으로 보인다. 국선이라는 말의 의미가 변한 것이다.

그런데 고려인이 화랑을 상기할 때 문화 활동 영역에 많은 관심을 둔 점이 주목된다. 위에서 이지백, 예중, 의중이 연등회나 팔관회, 사선 등을 거론한 것이 그러한 양상이다. 사선악부의 존재는 이를 대표하는 예이다.

구정(毬庭)에 윤등 하나를 설치하고 사방에 향등을 배열하였다. 또 두 채의 채봉을 다섯 길이 넘는 높이로 지어 놓고 온갖 놀이와 가무를 벌였다. 그 사선 악부와 용·봉황·코끼리·말을 장식한 수레와 배는 모두 신라의 고사이다.; 팔관회……그 사선 악부와 용·봉황·코끼리·말을 장식한 수레와 배는 모두 신라의 고사이다.³³⁾

동짓달 팔관회 때 벌인 가무백회에 사선 악부가 중요한 공연거리였음을 알려 준다. 신라의 사선은 일정한 양식의 가무를 만든 화랑으로 인식

軍行者 除軍籍.

31) 이와 유사한 조처가 이후 두 번 더 나온다. 『고려사』 75권, 지 29, 선거 3 전주, 『서조종묘예』, 忠宣王復位(1308) 教曰 祖王苗裔 無名者 雖挾二十二女 例以一戶一名 許初職 已入仕者 別錄敍用 屬南班者 改東班 勿差國仙 亦免充軍……忠肅王十二年(1325) 教 祖王苗裔 雖挾三女 許入仕 屬南班者 改屬東班 勿差國仙 仍免軍籍.

32) 신복룡, 『한국정치사』, 4판; 박영사, 2003, 39쪽.

33) 위의 책 69권, 지 23, 예 11, 가례잡의, 『중동팔관회의』, 遂於毬庭 置輪燈一座 列香燈於四旁 又結二綵棚 各高五丈餘 呈百戲歌舞於前 其四仙樂部 龍鳳象馬車船 皆新羅故事; 『신증동국여지승람』 4권, 『개성부 풍속』, 八關會……其四仙樂部 龍鳳象馬車船 皆新羅故事.

된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다음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동도는 본래 신라[의 수도]이다. 옛날에 사선이 있어 각기 거느린 무리가
천여 명이고 가법(歌法)이 성행하였다.³⁴⁾

사선은 가법을 성행시킨 화랑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1120년
10월 예종이 팔관회 자리에서 8행 향가인 <도이장가>를 지은 것은 특기
할 만하다.

신사일. 팔관회를 배설하고 왕이 잡회를 관람하였다. [잡회 중에] 국초의
공신 김낙과 신승겸의 우상을 만들어 노는 것이 있었는데, 왕이 보고 감탄하
여 시를 지었다.³⁵⁾

팔관회의 전통 속에 향가 창작의 전통까지 포함시켜 신라의 화랑 문화
를 계승하고 있다. 예종이 지은 8행 향가가 사선의 가법을 계승했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주 창작층이 화랑도인 이상 향가가 화랑의 가법으로 인식,
향유된 것만큼은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고려는 주로 문화 활동의 면에서 신라의 화랑 제도를 계승했는
데, 그 자취는 민적이 국선이 된 사례가 나오는 13세기 말까지도 보이고
있다. 충렬왕대는 곧 고려 가요가 궁중 악으로 편입된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고려 가요 <동동>의 선어를 화랑의 전통에서 찾는 것은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논의인 셈이다.

34) 『보한집』 상권, 東都本新羅 古有四仙 各領徒千餘人 歌法盛行.

35) 『고려사』 14권, 세가 14, 『예종 15년 10월』, 辛巳 設八關會 王觀雜戲 有國初功臣金
樂申崇謙偶像 王感歎賦詩.

3. 화랑의 활동상과 <동동>

1) 화랑의 활동 양상

화랑의 활동에 관한 포괄적인 기록은 『삼국사기』에 나오지만,³⁶⁾ 그것만으로는 그들의 일상을 그려 내기가 쉽지 않다. 본고는 <동동>과 화랑, 국선의 연결 고리를 찾는 데 목적을 두므로, 화랑의 활동 중에서 <동동>과 관련될 만한 것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화랑도가 명절 때 활동한 것으로 증담의 예가 있다.

3월 3일에 왕이 귀정문 누각 위에 거둥하였다. 좌우에 이르기를, “누가 길에서 잘 차려입은 스님 한 분을 모셔 오겠느냐?” 하였다.……“그대는 누구인가?” “증담입니다.” “어디서 오는 길인가?” “소승은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차를 달여 남산 삼화령 미륵 세존께 대접합니다. 이번에도 차를 드리고 오는 길입니다.”³⁷⁾

삼월 삼짇날은 봄을 시작하는 뜻 깊은 명절이다. 이때 경덕왕이 신하와 함께 월성 서쪽 제일 바깥 정문인³⁸⁾ 귀정문 문루에 올라 궁궐 밖 민간의 명절 행사를 관망하였다. 왕 앞에 불러온 증담은 3월 3일과 9월 9일에 남산 삼화령 미륵세존께 차 공양을 드린다고 하였다. 삼화령 미륵세존은 선덕왕대 생의가 몽조로 얻은 돌미륵이다.³⁹⁾ 삼화령은 진성여왕대 효종랑

36) 『삼국사기』 4권, 신라본기, 『진흥왕 37년』, 或相磨以道義 或相悅以歌樂 遊娛山水 無遠不至.

37) 『삼국유사』 2권, 기이 제2, 『경덕왕 증담사 표훈대덕』, 三月三日 王御歸正門樓上 謂左右曰 誰能途中 得一員榮服僧來……汝爲誰耶 僧曰 忠談 曰 何所歸來 僧曰 僧每重三重九之日 烹茶 饗南山三花嶺彌勒世尊 今茲既獻而還矣.

38) 『동경잡기』, 동경잡기간오, 歸正乃最外之正門 又曰 歸正西門也.

39) 『삼국유사』 3권, 답상 제4, 『생의사 석미륵』, 善德王時 釋生義……至其洞掘地 有

이 효녀 지은을 도와줄 때 유람했던 곳이기도 하여⁴⁰⁾ 화랑의 유람처 중 하나이다. 이 자리에서 충담은 왕의 요청으로 향기를 지어 불렀는데 이것도 명절 행사의 일환일 수 있다. 화랑도가 차 공양, 향가 향유 등으로써 삼짚날 행사를 한 것이라 하겠다.

봄 명절 행사는 김유신 가문에서도 행해졌다. 김씨 종가의 재매 부인이 죽자 청연에 장사지냈는데 매년 봄에 종종 남녀가 그 골짜기의 남쪽 개울가에 모여 연회를 베풀었다는 것이다.⁴¹⁾ 삼짚날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으나 골짜기 개울가의 연회는 삼짚날의 명절 행사의 일환으로 보인다. 한 가문의 행사이긴 해도 김유신이 화랑의 대표 격임을 감안하면 화랑과 삼짚날 행사의 관련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문무왕의 서제(庶弟) 거득이 화랑으로 활동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⁴²⁾ 그가 문무왕의 허락을 받고 국토를 순유(巡遊)한 것은⁴³⁾ 후대 경문왕 경응의 경우처럼 화랑의 순유와 상통한다.⁴⁴⁾ 그가 무진주에서 대접을 잘 받고 떠나면서 자기 이름을 단오라고 알려 준다.⁴⁵⁾ 5월 5일 단오를 수릿날이라고 하는 유래가 거득의 이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화랑과 단오절의 관련성을 시사 받을 수 있다.

石弥勒出 置於三花嶺上……忠談師 每歲重三重九 烹茶獻供者 是此尊也.

40) 위의 책 5권, 효선 제9, 『빈녀양모』, 孝宗郎 遊南山鮑石亭—或云三花述.

41) 위의 책 1권, 기이 제1, 『김유신』, 金氏宗財買夫人 死葬於青淵 上谷因名財買谷 每年春月 一宗士女 會宴於其谷之南澗.

42) 『화랑세기』, 제13세 『용춘』, 『龍宝事太宗 生車得馬得兩公』을 통해 거득이 화랑 가문 태생인 것은 알 수 있다.

43) 『삼국유사』 2권, 기이 제2, 『문호왕 법민』, 公著緇衣 把琵琶 爲居士形 出京師 經由阿瑟羅州—今溟州—牛首州—今春州—北原京—今忠州—至於武珍州—今海陽—.

44) 신재홍, 『화랑의 순유와 향가』, 『중세 여행 체험과 문학교육』, 월인, 2012, 43~44쪽, 55~56쪽.

45) 『삼국유사』 2권, 기이 제2, 『문호왕 법민』, 居士欲辭行時曰 僕京師人也 吾家在皇龍皇聖二寺之間 吾名端午也—俗謂端午爲車衣—.

화랑의 명절 행사로는 축국(蹴鞠)⁴⁶⁾과 탐돌이⁴⁷⁾를 들 수 있다. 화랑 유신과 춘추가 정월 보름에 한 공놀이, 곧 축국은 명절 행사의 일환일 것이다. 『화랑세기』에는 풍월주의 취입식이 주로 정월 또는 정월 보름에 열리는데⁴⁸⁾ 명절에 맞춰 의식의 취지를 더욱 뜻 깊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탐돌이는 2월 보름에 흥륜사에서 행해졌다. 흥륜사는 신라 왕실의 원찰이고 화랑과도 관련이 깊은 절이다.⁴⁹⁾ 이 절의 전탑에서 ‘낭군’이라 칭해진 화랑 김현이 탐돌이를 하였다. 서라벌 및 지방의 수많은 절에서 탐돌이 행사가 있었고 화랑이 거기에 참가했으리라 짐작된다.

이렇듯 화랑도는 정월 보름, 2월 보름, 3월 삼짇날, 5월 단오, 9월 중구절 등의 명절과 관련되어 있다.

이와 함께 화랑의 전반적인 활동상을 들어 <동동>과 비교할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화랑은 대개 훌륭한 무사의 모습이다. 그런데 『화랑세기』에서 보면, 그러한 무사상은 통일 전쟁기에 두드러지고 그 이전과 이후는 신라의 전통 선도와 관련된 활동에 치중해 있다. 이러한 활동에서 드러나는 화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 탐구가로서의 모습이다. ‘신수 간에 노닐었다.’에서 ‘노닐’은 놀이 문화에서 나아가 자연 과학적 탐구 활동까지 의미한다. 그 대표적인

46) 『삼국사기』 6권, 신라본기, 『문무왕』, 庾信與春秋公蹴鞠 因踐落春秋衣紐; 『삼국유사』 1권, 기이, 『태종춘추공』, 庾信與春秋公 正月午忌日—見上射琴匣事 乃崔致遠之說—蹴鞠于庾信宅前—羅人謂蹴鞠爲弄珠之戲—故踏春秋之裙 裂其襟紐; 『화랑세기』, 제18세 『춘추공』, 庾信與公 蹴鞠宅前 乃正月午忌日也.

47) 『삼국유사』 5권, 감통 제7, 『김현감호』, 新羅俗 每當仲春 初八至十五日 都人士女 競逸興輪寺之殿塔 爲福會 元聖王代 有郎君 金現者 夜深獨逸不息.

48) 『화랑세기』, 제9세 『비보랑』, 至是爲九世風月主……時建福二年 春正月也; 같은 책, 제12세 『보리공』, 乃得位 建福八年 春正月也……公以建福八年 春正月十五日 就主位.

49) 기록상으로는 미시랑을 모신 진자, 임종, 양도, 여기서의 김현 등이 흥륜사와 관련된 화랑도이다.

예가 보종(寶宗)이다.

얼굴빛은 늘 어린아이 같았고 항상 콩죽을 먹고 육식을 좋아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원 안 여러 종의 고목을 둘러보았고, 물고기와 학을 기르며 그 사이에서 소요하였다.……“너희가 선도를 배우려거든 마땅히 보종 형공을 좇을 것이다.”……우주의 참된 기운을 깊이 통찰하고 물고기와 새, 꽃과 나무의 살아 움직이는 이치에 정통하지 않음이 없었다. 유신이 병에 걸렸을 때 문득 공이 손수 치료하여……그가 편작의 학술도 지녔음을 알게 되었다.⁵⁰⁾

선식, 정원 가꾸기, 소요하기와 함께 동식물에 대한 탐구, 의술 등을 행하고 있다. 불로장생을 위해 선약을 만드는 중국 신선의 모습과 겹치면서도 신라의 전통적인 자연 탐구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곧 선도의 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보종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기풍은 혈연관계로 얽힌 화랑 사이에서 널리 전수, 육성되었을 것이다.

둘째, 사랑 몰입자로서의 모습이다. 『화랑세기』는 풍월주와 화주(花主)의 관계를 자세히 기술하거나 풍월주 주변의 복잡한 여성 관계에 대해 언급하기도 한다. 기존 사서에 보이지 않던 모습이 바로 ‘사랑을 하고 있는’ 화랑상이다. 대표적인 예로 이화랑과 사다함을 들어 본다.

숙명 공주가 공을 그리워하여 스스로 억제치 못했다. 화가 미칠까 두려워 자살하고자 했더니 홀연 금부처가 와서 “나는 약사불이라. 공주의 배를 빌려서 거하고자 하노라.”고 알렸다. 공주가 꿰어앉아 합장 배례하니 부처가 공

50) 『화랑세기』, 제16세 『보종』, 色常如嬰兒 常餐豆粥 不喜食肉 朝起視園中多種古木 養魚飼鶴 逍遙其間……爾等欲學仙 當從寶宗兄公 ……深察宇宙之眞氣 魚鳥花木 生生之理 莫不精通 庾信公有病 公輒自治之……以此皆知 其有扁鵲之學也.

주를 안고 엎어져 뱃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다. 이때 이화공도 그리움을 어찌지 못해 궁중으로 몰래 들어와 공주를 뵈니, 공주가 바로 누워 안았던 것을 잃어버린 듯이 하고 있었다.⁵¹⁾

무관랑이……밤에 궁궐 담을 넘다가 구지(溝池)에 떨어져 다쳤는데 얼마 안 가서 죽었다. 사다함공이 애통하다가 그 또한 마르고 병들어 7일 만에 숨졌다. 금진이 공을 안고 발을 구르며 말했다. “나 때문에 네 마음이 상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내가 어찌 살겠느냐.” 공이 천천히 눈을 뜨고 말했다. “죽고 사는 것은 운명입니다……” 공이 평소에 미진부공의 딸 미실을 사랑하였고 미실도 공을 좋아했으나 태후의 명으로 세종공에게 시집가니, 이로써 (….) 마음을 내어 어머니에게 간하지 않았던 것이다.⁵²⁾

『화랑세기』의 여러 사랑 이야기는 인물들이 얽혀 복잡한 양상을 띠는데, 이화랑-숙명 공주-진홍왕, 무관랑-금진/사다함-미실-세종공의 관계도 그렇다. 숙명은 진홍왕의 비이면서 이화랑과 사랑에 빠져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고뇌한다. 사다함은 이제 세종의 비가 된 미실을 잊지 못하던 차에 어머니 금진과 친구 무관랑의 사통 사건으로 인해 번민하다가 병들어 죽는다. 숙명에 대한 이화랑, 미실에 대한 사다함의 사랑은 죽음에 까지 이르는 위험성과 열정을 지닌 것이었다.

사랑에 몰입하는 배경에는 신라 왕족 및 귀족 사회의 근친혼 풍습, 정치 세력 간의 이합 등 정치·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신라

51) 위의 책, 제4세 『이화랑』, 公主慕公 不能自抑 恐有禍 而欲自殺 忽有金佛來告曰 我乃藥師佛也 欲借公主之腹 而居之 公主乃跪其前 而合掌拜禮 佛乃抱公主而仆 況若入之 時公亦慕公主不禁 乃犯宮中 見公主仰臥若失抱.

52) 위의 책, 제5세 『사다함』, 武……夜超宮牆 落于溝池而傷 未幾而卒 公哀痛之 亦瘦瘁 七日而盡 金珍乃抱公頓足曰 以吾之故 傷汝心 以至於此 吾何以生乎 公徐開眼曰 死生命也……蓋公素愛未珍夫公女美室 美室亦好公 而以太后命 嫁于世宗公 以此發□□之心 不諫母.

사회를 배경으로 한 화랑의 사랑은 여러 사건을 일으켰고 그것은 다시 이야기와 노래로 만들어져 전파되었다. 그 여향은 <동동>이 지어진 고려 시대에도 남아 있었을 것이다.

셋째, 풍류 예술가로서의 모습이다. ‘가악으로 서로 즐기고 산수 간에 노닐었다.’고 하여 화랑의 예술 활동은 익히 알려져 있는데, 『화랑세기』에 그 양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향가 창작을 비롯하여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다.

문노의 낭도는 무사를 좋아하고 협기가 많으며 설원의 낭도는 향가를 잘 하고 청유를 좋아했다. 그러므로 나라 사람이 문도를 가리켜 호국선이라 하고 설도를 가리켜 운상인이라 하였다.; 비보공은 설원공과 동갑으로, 함께 노래를 배웠으나 그에게 미치지 못하고 피리를 배웠어도 미치지 못했다.; 하중공은 15세에 화랑에 들어갔다. 토함공에게 역사를, 이화공에게 노래를, 문노공에게 검술을, 미생공에게 춤을 배웠는데 모두 그 정수를 깨우쳤다.; 보중공은 늘 작은 청려마에 걸터앉아 피리를 불며 저자거리를 지나갔고…… 그림을 잘 그려 인물화와 산수화의 오묘함은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보중공이 모종공을 제 몸처럼 사랑하여 문장과 화법(畫法)을 가르쳤다.……양도공이 분발하여 힘써 그림을 그렸다. 진도(陣圖)를 그리기 좋아했고 병장기를 그린 것이 매우 정교하였다.; 동란공이 이때 음성서의 장으로서 향가를 잘했는데, 석명이 동란공에게 노래와 춤을 배웠다.⁵³⁾

53) 위의 책, 제7세 「설화랑」, 文弩之徒 好武事多俠氣 薛原之徒 善鄉歌好清遊 故國人指文徒爲護國仙 指薛徒爲雲上人; 제9세 「비보랑」, 公與薛原公同年生 同學歌不及 學笛又不及; 제11세 「하중」, 公年十五而入花郎 學史于兔舍公 學歌于二花公 學劍于文弩公 學舞于美生公 皆得其精; 제16세 「보중공」, 常跨小青驪 吹笛過市……善畫人物山水 妙入神境; 제22세 「양도공」, 寶宗公愛之如己 教以文章畫法……公乃奮發力作 好陣圖兵仗 甚精; 제23세 「군관공」, 冬蘭公時以音聲署長 善鄉歌 昔明學歌舞于冬蘭公.

화랑은 어려서부터 선배 화랑으로부터 학문과 예술을 배웠고, 자라서 문학, 음악, 미술, 무용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였다. 화랑도 집단이 예술 활동의 본거지가 된 양상을 잘 보여 준다. 이러한 활동은 양도의 예처럼 무사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도 했다.

2) <동동>과의 관련성

이상에서 살펴본 화랑의 활동은 <동동>의 선어를 화랑과 관련된 말로 보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아래에 월령 별로 정리한 <동동>의 내용을 제시한다.

[표] <동동>의 시간 배경, 제재, 시적 상황

	서사	1월령	2월령	3월령	4월령	5월령
시간	현재	(15일/대보름)	15일/연등	(3일/삼짇날)		5일/단오
제재	곰배·림배	넷물	등불	진달래	피꼬리	아침 약
상황	덕과 복을 빌	혼자임	님 칭송	님 칭송	님의 망각	님의 장수 기원
6월령	7월령	8월령	9월령	10월령	11월령	12월령
15일/유두	15일/백중	15일/한가위	9일/중구절			(31일/제석)
빗	백중	가배 날	약용 황화	화살나무	붕당·한삼	산초나무·저
쫓고자 함	함께함 기원	못 모심	고요한 집	님의 부재	홀로 지냄	물러남

먼저, <동동>에서 월령체 형식으로 그려 낸 명절 풍속은 화랑이 그 행사에 참여한 신라 이래의 전통과 관련될 만하다. 표에서 보듯이, 2월, 5월, 6월, 7월, 8월, 9월령은 문면에 명절이 드러나 있고 1월, 3월, 12월령은 숨어 있긴 하지만 추정이 가능하다. 1월령의 제재가 '넷물'인 점에서 정월 대보름의 답교놀이에서 다리 아래를 굽어보는 화자의 시선을 읽을 수 있다. 3월령에서 '삼월 나며'라는 표현은 '삼월 들어'의 뜻으로 3월 초입의 삼짇

날을 시사한다. 12월령의 ‘분디나무’와 ‘진상할 소반’으로는 선달그믐의 제석에 나레와 같은 행사를 한 후 올리는 소반을 떠올릴 수 있다.

이와 같이 <동동>은 월령체로 되어 있어 매달의 명절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님을 그리워하며 세월을 보내는 화자에게 때마다 돌아오는 명절이 시간의 분절을 뚜렷이 일깨워 주고, 그에 따라 그리움의 정서를 배가시켰을 것이다. 그중 2월 보름의 연등회, 3월 삼짇날, 5월 단오, 9월 중구절은 앞 장에서 본 대로 화랑이 활동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명절이다. 6월 유두, 7월 백중, 8월 한가위 등은 화랑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지만 모두 신라에서 고려로 전승된 명절이므로 신라 문화의 주 담당층인 화랑과 어떻게든 관계되었을 것이다. 이에 <동동> 선어에 포함된 의미 중 하나는 신라로부터 고려로 이어진 세시 풍속을 배경으로 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명절 음식과 보약이 나오는 것도 화랑의 활동과 연관될 수 있다. <동동>은 매달 명절을 배경으로 함에 따라 명절 음식이 등장한다. 3월령의 ‘진달래’는 삼짇날의 꽃지짐을 떠올리게 하고 7월령의 ‘백중’은 제사상에 차려진 온갖 과일과 곡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음식명은 없지만 8월령의 ‘가배 날’ 자체가 명절을 뜻하는 동시에 풍성한 수확물과 차례 상을 연상시키는 말이기도 하다. 같은 맥락에서 12월령의 ‘진상할 소반’ 위에는 제석의 명절 음식이 차려졌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명절 때 먹는 음식을 약이라고 표현한 점이 주목된다. 5월령의 ‘아침 약’, 9월령의 ‘약이라 먹는 황화’가 나온다. 5월령의 약은 단오에 캐어 말려서 약초로 쓰는 쑥이나 익모초를 가리킨다. 그 약초를 말려서 만든 약재를 바치면서 ‘천 년을 길이 사실’ 것을 기원하고 있다.⁵⁴⁾ 약초를 넣어

54) 최미정, 앞의 논문; 최재남, 『상부가로서 동동의 상실체험』, 『경남어문논집』 6집, 경남대 국문과, 1993에서 님의 부재를 죽음으로 보고 작품론을 펼쳤는데, 님의 장수를

탕약을 달여 직접 님에게 바친다기보다 단오에 캔 것을 말려 약재로 만들어 님에게 보내는 것이다. <동동> 전체가 님이 부재한 상황에서 화자가 발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9월령의 약은 ‘황화’ 곧 국화이다. 이것은 5월령처럼 어떤 특정한 약이라기보다 중구절의 명절 음식인 국화차나 국화주를 칭한 것이다. 그와 함께 ‘꽃이 안에 드니’라고 하여 국화가 약의 재료로 집 안에 들여져 있는 상황도 나타나 있다. 차나 술로 우려먹거나 실제 약재로 쓰일 수 있는 국화를 집 안에서 말리는 광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의 향기가 초가집 지붕 아래에 은은히 퍼져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10월령의 ‘저민 화살나무’를 더할 수 있다. 뒤에서 논하듯이, 본고는 ‘브룻’을 ‘화살나무’로 풀이한다. 이 나무의 가지는 잘게 썰어져 약재로 사용된다. 5월령의 약초, 9월령의 국화, 그리고 10월령의 화살나무 등이 약재가 되어 그것들로 만든 탕약, 차와 술 등이 ‘천 년을 길이 살’ 보약의 의미 맥락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명절 음식은 3월, 7월령에서 구체적으로, 8월, 12월령에서 연상적으로, 그리고 5월, 9월, 10월령에서 약재로써 표현되었다. 명절 음식을 통해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바 보중으로 대표되는 화랑이 자연 속에 노닐며 동식물의 생태를 탐구하고 의술을 익히는 등의 활동을 한 맥락과 연결된다. 이에 <동동> 선어의 또 다른 의미로 화랑의 자연 탐구 활동의 연장선에서 명절 음식과 보약에 대한 관심을 통해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님에 대한 송축 및 그리움이라는 <동동>의 정서와 주제가 화랑

비는 작품 내용과 배치되는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최미정의 해석에 대한 비판은 이도흠, 『고려속요의 구조분석과 수용의미 해석』, 『한국시가연구』 1집, 1997, 388쪽에서도 제기되었다.

의 활동과 관련될 수 있다. 4월령을 제외하고 1월에서 9월령까지 시간적 배경으로서의 명절과 그에 따른 명절 음식이 문면에 드러나거나 암시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과 제재를 통해 각 월령에서 화자의 정서와 주제가 피력되었다. 이를 화자와 청자, 곧 나와 님의 2항으로 대비시켜 보면, 서사,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령은 님의 태도 쪽으로 기울고, 1월, 8월, 9월, 10월, 11월령은 나 자신의 처지 쪽으로 기울고 있다. 전자는 대개 님에 대한 송축과 공경을, 후자는 외로움과 그리움의 정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두 흐름은 12월령에서 합쳐지지만 희망과는 달리 일이 어그러지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렇듯 전반부는 님에 대해, 후반부는 자신에 대해 화자의 정서와 생각을 토로하고 있다. 님 쪽으로 향했던 마음이 자기 쪽으로 돌려지는 흐름이다. 이를 명절과 연결 지어 보면, 봄여름 명절은 님 쪽으로 갔다가 가을 명절을 지나면서 자기 쪽으로 돌아오는 양상이다. 9월 중구절 이후 명절이 문면에서 사라진 것은 자신에게로 향한 탄식과 외로움의 시간이 그만큼 길고 혹독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다가 12월에 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뻔 하지만 결국 화자가 물러나는 것으로 결말이 난다.

이러한 정서의 흐름은 시간의 순환 속에 끝과 처음이 다시 연결된다. 12월령에서 서사로 넘어가면 관계가 틀어져 버린 님에 대해 송축하고, 1월령으로 가면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탄식한다. 그리고는 앞에서 본 것처럼 님에 대해 생각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그러다가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흐름이 전개된다. 이렇게 매달의 명절을 연결점으로 하여 시간의 순환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는데, 그러는 중에 한 월령이 다른 월령과 상관 관계를 맺게도 된다.⁵⁵⁾ 1월령과 11월령은 외로움의 주제로 상응하고, 2월,

55) 박진태, 『동동과 쌍화점의 구조』, 『대구어문논총』 2집, 대구대학교, 1984, 66~67쪽에서 두 월령씩 고독-사랑의 대립 구조를 추출한 바 있다.

3월령과 10월, 11월령은 님에 대한 칭송과 님의 부재로 대응하고 있다. 6월, 7월에서 님을 좇고 싶고, 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기원하던 것이 8월령 이후는 자신의 외로움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동동>의 이러한 사상 전개에 대해 자아와 대상의 관계를 순환적 세계관을 통해 형상화했다고 할 만하다. 대상 쪽으로 갔다가 자아 쪽으로 향하는 흐름 속에 둘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질듯 하다가 결국 파국을 맞이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순환 궤도에 오르는 식이다. 이러한 세계관은 넓게 보아 동양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고 화랑의 세계관도 이에 포함될 것이다.

송축의 주제와 그리움의 정서는 왕족 및 귀족 자체가 지도자급이 되었던 화랑 제도에서는 일반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애정에 몰입하는 일이 빈번하였던 화랑 집단의 정서적 분위기로 보아, 귀족 사회의 위계질서 내에서 고귀한 이를 송축하는 일과 사랑의 감정으로 인해 그리워하고 하소연하는 일은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집단적 분위기가 화랑의 정서적 특질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김유신과 천관, 백운과 제후, 김현과 호랑이 처녀 등의 사랑 이야기가 나왔고 그것은 고려인에게도 강한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동> 선어의 의미 중 하나로서 순환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님을 송축하거나 그리움을 토로하는 정서적 태도를 보낼 수 있다.

끝으로, 화랑이 향유한 향가의 율격과 형식이 <동동>과 공통되는 면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존 향가는 4행, 8행, 10행, 장가의 네 가지 하위 양식이 확인되고 중심 율격은 대체로 3음보로 파악된다.⁵⁶⁾ <동동>은 전체적으로는 월령체 형식을 취했지만 각 연은 대개 3음보 4행의 율격을 갖추고 있어서 4행 향가와와의 율격적인 관련성이 깊다고 할 수 있다. 고유

56) 신재홍, 『향가의 미학』, 집문당, 2006, 117~203쪽.

서정시의 역사적 전개는 크게 보아 3음보의 향가, 고려 가요에서 4음보의 시조, 가사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는데,⁵⁷⁾ <동동>과 향가의 율격 면에서의 친연성은 이러한 역사적 흐름 위에 놓인 현상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동동>의 율령체 자체도 향가 중 장가가 갖는 8행 3연의 형식과⁵⁸⁾ 비교할 만하다. <동동>의 율령체를 계절 별로 나누면 봄은 ‘~르셔, ~샷다, ~샷다’로, 여름이 ‘~신더, ~노이다, ~노이다’로 끝나 종결 어미가 ABB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결 어미만 주목한 것이지만 봄에 속한 3연과 여름의 3연이 4행 3연의 일정한 규칙성을 보이는 것은 향가 장가가 8행 3연으로 이루어진 점과 함께 3연이 한 단위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가을은 ‘~노이다, ~샷다, ~햐애라’로, 겨울은 ‘~샷다, ~르셔, ~노이다’로 6연을 한 단위로 종결 어미가 처음과 끝에 쓰이고 있다. 3연 형식의 확대라고 할 만하다. 이로써 4행 향가의 3음보 4행, 장가의 3연 결합 등이 <동동>의 율격 및 형식과 일정한 관련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동동>의 선어란 첫째, 신라로부터 고려로 이어진 세시 풍속을 배경으로 하여 시적 화자의 정서를 표현했다는 점, 둘째, 명절 음식과 보약에 대한 관심을 통해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뜻을 드러냈다는 점, 셋째, 순환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여 님을 송축하거나 그리움을 토로하는 등의 정서적 태도가 담겼다는 점, 넷째, 향가의 율격과 형식이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 등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내용적, 형식적 특성들을 드러내는 <동동>의 시적 양상을 신라의 화랑 문화와 관련지어 고려 당대에 선어라고 지칭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57)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979, 34쪽; 신재홍(2006), 앞의 책, 144쪽.

58) 신재홍(2006), 앞의 책, 202쪽.

4. <동동> 난해구 해석과 선어의 이해

<동동>의 선어를 화랑 문화와 관련짓는 데는 작품 자체의 서정시다운 성격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향가가 개인 서정시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는 점에 견주어 <동동> 역시 그러한 성격을 지녔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선어의 이해에 구체성을 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동> 난해구에 대한 재해석이 필수적인 과정으로 대두하는바, 아래에 본고 나름의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사(序詞)는 송축의 주제로만 이루어져 이별의 정한을 기조로 한 1월~12월령에 비해 의미와 정서가 다르다. 애초의 월령체에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본사에 서사를 덧붙일 실마리를 12월령의 ‘나술 盤’에서 찾아 서사에서 ‘나스라’로 연결 지었을 가능성이 크다.⁵⁹⁾ 임금이나 귀족에게 진상하는 소반 위에 서사의 ‘곰비 립비’의 ‘비(杯)’가 놓였고, 12월령의 ‘저(箬)’로써 소반의 음식을 차렸던 상황을 추정할 수 있다.

3월령의 제2행은 ‘滿春 들 윗고지여’와 ‘滿春 들윗고지여’로 끊어 읽기가 나뉜다. 그런데 ‘늬뭉 브롤 즈슬’이 이어지므로 앞에 나온 꽃과 같은 수준, 종류, 성격의 ‘늬’, 곧 ‘다른’ 꽃을 상징해야 한다. 따라서 ‘滿春’이 ‘~궁/전/루/정(亭)/대(臺)/지(池)’ 등 특정 공간을 한정하는 말이어야 거기에 핀 꽃은 다른 꽃과 구분되어 ‘부러워할 만한’ 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고려 시대 용어를 찾지 못한 것이 한계이지만, ‘만춘’을 고유명사로 보아 ‘만춘궁/전/루……’에 피어 있는 ‘들윗꽃’(진달래꽃)으로 풀이하면 문맥이 자연스럽다.

4월령의 ‘므슴다’는 ‘므슴하다’의 ‘ㅎ’가 생략된 형태로 보아⁶⁰⁾ ‘어떻다,

59) 박노준, 『동동의 한 이해』, 『고려가요의 연구』, 새문사, 1990, 306쪽에서도 ‘진상이라는 의식을 핵으로 하여 12월 노래와 서련이 연결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60) 박병채, 『고려가요 어석연구』, 선명문화사, 1968, 90쪽.

어찌하여'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명사, 관형사, 부사로 쓰인 '므슴'(무엇, 무슨, 어찌)에 '-다'가 바로 붙은 형태가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이에 『우리말큰사전』에서는 '므슴 다'(무슨 탓)로 풀이해 놓았다.⁶¹⁾ '다'를 '닷'(故)의 이형태로 본 것인데, 이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錄事'는 님을 특정 벼슬로 표현한 말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를 아전으로만 국한해야 할지는 의문이다. 고려의 관직에 문하녹사(門下綠事)도 있기 때문이다.⁶²⁾ 문하시중과 같은 최고 관직을 보필하는 문한 직에 젊은 귀족 자제를 임명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녹사는 장래가 유망한 젊은 이가 거쳐 가는 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높은 자리가 보장된 인물이어야 2월령의 '萬人 비취실', 3월령의 '늑뵈 브롤 즐', 5월령의 '즈른 힐 長存 亨 샐' 등 임금이나 최고위층 귀족에게나 어울릴 법한 수식어가 붙을 수 있다.

6월령의 '적곰'은 '젓버디다' 혹은 '젓다'(轉)와 관련지어 '자빠지다'로 풀기도 했으나⁶³⁾ '적다'(少)와 '-곰'(강세사)의 원뜻을 살리는 해석으로 자연스런 문맥을 이룰 수 있다. 12월령의 재해석에서 보듯이, 화자는 님만을 모실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니 '잠시나마, 잠시라도' 기회가 날 때마다 님을 좇고 싶다는 기원을 표현한 것이다.⁶⁴⁾

9월령의 '새셔'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져 근래에 '새로 담은 좋은 술(新

61)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1992, 『옛말과 이두』, '다' 항목 참조.

62) 양주동, 『여요전주』, 을유문화사, 1955, 101쪽.

63) 서재극, 『노래 동동에서 본 고려어』, 『고려시대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1975, 101쪽; 정병욱·이어령, 『고전의 바다』, 현암사, 1977, 130~131쪽.

64) 이 논문을 학회에서 발표했을 때 조용호 교수는 토론문에 '때(時)를 의미하는 '적'에 같은 수효로 나눈 것을 표시하는 접미사 '-씩'과 같은 뜻을 지닌 고어의 '곰'이 결합된 것으로 보아 '님이 돌아보실 때마다' 정도로 어석하는 것은 어떨지 묻고 싶다(『월인석보』 1:38b에는 '이 세계 여러 번 드외스야 혼 적곰 고터 드월씩'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 '혼 적곰'은 '한 때씩'으로 해석된다.)'고 적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겠다고 생각하여 기존의 풀이와 함께 언급해 둔다.

醋, 新漚)’까지 나왔으나⁶⁵⁾ ‘초가지집(茅椽, 茅齋)’으로 본 견해가 온당하다고 본다.⁶⁶⁾ <이상곡>의 ‘우셔마득 사리마득’에서 ‘우셔’를 [집] 위 서까래, 윗처마’로 해석한 관점을⁶⁷⁾ 연장하여 여기서의 ‘새셔’는 ‘새를 얹은 서까래, 초가지붕’으로 보는 것이다.

10월령의 ‘브룻’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양주동이 ‘보로 쇠’(보리수나무, 보리수 열매)로 풀이한 것이⁶⁸⁾ 여러 논자에게 수용되었다. 그러나 김완진은 이를 ‘버러’와 같은 말로 보아 화살을 쏘거나 매사냥을 할 때 팔뚝에 치는 가죽 팔찌 혹은 엄지손가락에 끼는 깍지로 해석하였다.⁶⁹⁾ 여기서 ‘브딴회’(화살나무)라는 중세어에 주목할 만하다. ‘브딴회’는 ‘브딴+회’로서 회나무 중 ‘브딴’ 모양의 나무를 지칭한다. ‘브딴’이 ‘화살’에 대응하는 만큼 이 말은 화살대의 끝에 세 방향으로 꽃힌 깃털을 뜻하는바, 화살나무 가지의 모양이 바로 이와 같다. ‘브딴’은 또 김완진이 제시한 ‘버러’와 함께 활쏘기 자세에서 거의 같은 지점을 지시한다. 가죽 팔찌를 찬 왼손으로 활을 잡고 깍지를 낀 오른손으로 활시위를 끌어당길 때 오른손이 잡는 곳이 깃털 꽃힌 화살대이다. 이 지점을 통틀어 ‘브딴’ 혹은 ‘버러’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다. ‘버러’와 ‘브딴’의 이형태가 여기서의 ‘브룻’인 셈이다. 이에 ‘브룻’은 화살나무로 풀이할 수 있다. 보리수 열매와 달리 화살나무는 ‘저밀’ 수도 있고 ‘꺾어 버릴’ 수도 있으며 ‘지닐’ 수도 있다.

65) 황병익, 『동동 ‘새셔가만흐애라’와 한림별곡 ‘영소년(鄭少年)’의 의미 재론』, 『정신문화연구』 109,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129~130쪽.

66) 남광우, 『고려가요 주석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고려시대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1975, 64쪽.

67) 신재홍, 『이상곡의 분절과 해석—향가와 관련하여』, 『국어교육』 140집, 한국어교육학회, 2013, 193쪽.

68) 양주동, 앞의 책, 123쪽.

69) 김완진, 『고려가요의 물명—국어학적 고찰』, 『향가와 고려가요』, 서울대출판부, 2000, 342~344쪽.

11월령의 제1, 2행은 ‘봉당 자리에 / 한삼 덮어 누워’로 읽을 수밖에 없는 듯이 보인다. 대개 한겨울에 속적삼만 입고 차디찬 봉당에 누워 있는 여성 화자의 모습을 상정하여 처절한 상황에 놓인 외로운 처지를 그려 낸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상황 설정이 가능한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미친 사람이 아닌 바에, 동짓달 봉당에 나와 속적삼만 입고 누워서 무얼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여기에는 ‘누워’를 ‘눹다’(臥)의 활용형으로만 본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두에서 ‘누은, 는’의 표기로 ‘臥乎隱’이 쓰이고, <청불주세가>의 향찰 중 ‘作將來臥乎隱’과 ‘落臥乎隱’은 ‘저즈러 누븐’(저질러 놓은)과 ‘디누븐’(떨어져 놓은)으로 읽을 수 있다.⁷⁰⁾ 이두와 향찰의 용례에서 ‘臥’는 원 뜻보다 ‘置之’에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이다. 중세어 ‘눹다’와 ‘놓다’는 의미 범주가 일정 부분 겹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작품의 ‘누워’도 ‘놓아/두어’의 의미에 가까운 말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제1, 2행은 ‘봉당 자리에 / 한삼 덮어 놓아’가 되어 속적삼이 아니라 덧소매인 한삼을 차가운 봉당 자리에 덮어 놓는다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 님이 밟고 방 안으로 들어오실 봉당 자리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 두려는 마음이 담긴 구절이 되는 것이다.

제3행 ‘슬흫 스라 온더’는 앞 두 행의 의미 맥락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을 수 있다. 곧, ‘슬흫’은 ‘슬히-’(冷, 시리다)의 동명사형, ‘스라’는 ‘슬(燃, 사르다, 없애다)+아’로 보아⁷¹⁾ ‘시림(냉기)을 없애 왔구나’의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동짓달 긴긴 밤 님을 기다리며 행여 안방 문 앞의 봉당 혹은 안

70) 신재홍, 『향가의 해석』, 집문당, 2000, 349~351쪽.

71) 서재극, 『여요 주석의 문제점 분석-동동·청산별곡을 중심으로』, 『어문학』 19집, 한국어문학회, 1968, 7쪽; 임재욱, 『11·12월 노래에 나타난 동동 화자의 정서적 변화』, 『고전문학연구』 36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11쪽에서도 ‘스라’를 ‘사르다’로 풀이한 바 있다.

방과 건넌방 사이의 봉당이 너무 차가울까 싶어 덧소매인 한삼이라도 덮어 놓아 봉당의 냉기를 조금이나마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제4행의 ‘스식옴’이 오지 않는 님을 ‘저대로(自) 둔 채’ 지낸다는 말로 앞 행들과 연결된다.

12월령의 ‘나슬 盤잇 저’를 대개 ‘소반 위에 놓인 저’, 곧 소반과 저를 한 묶음으로 이해해 왔다. 그렇지만 ‘나슬 盤’은 ‘진상할 소반’으로서 아직 진상한 것은 아닌 상태이다. ‘분디남 ㅁ로 갓곤’(산초나무로 깎은) ‘저’(箸, 저)는 소반 위에 놓여 있다기보다 소반 위에 놓일 그릇에 이런저런 음식을 담는 도구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 강한 향내가 나는 산초나무로 만든 저는 일용품은 아니고 특별한 행사, 가령 제석 같은 때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님이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집어 먹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니 가져다’는 ‘손’을 ‘손’(手)과 ‘손님’(客)의 어느 것으로 보느냐, ‘가져다’를 ‘가지(持)+어다’와 ‘가지(枝)+애 ㅍ다(모두)’의 어느 쪽으로 분석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갈렸다. ‘가지+어다’라면 ‘가져다’가 되어야 하고, ‘손이 가지에 다 물러지다’는 해석은 문맥상 매우 어색하다. 이에 ‘가져다’의 ‘다’를 4월령 ‘므슴다’의 ‘다’(탓)와 동일어로 보면 어떨까 한다. 그러면 ‘가져’는 ‘가죽/ㅁ죽’(齊, 가지런히 함, 나란히 함)의 이형태로서 ‘새북~새배, 딤북~딤배’와 같은 예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손(手)이 나란히 한 탓에’가 되어 앞에서 설명한바, 음식을 담는 데 쓰인 ‘산초나무 저’의 역할과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므르습노이다’는 의도법의 1인칭⁷²⁾ 표시 ‘노’를 살려 ‘[내가] 물러납니다’(退)의 뜻으로 본다. 그러면 12월령은 ‘산초나무로 깎은 / 진상할 소반에 저 같구나. / 님의 앞에 들어가 애교를 떨려니 / [여러] 손이 나란히 한 탓에 물러나립니다.’로 해석된다. 여러 사람이 나란히 산초나무 저를 가지고 음식을 담아서 그 저는 손이 많이 닳기 때문에 진상

72) 서재극(1975), 앞의 논문, 102쪽.

할 소반에 올리지 못하는 것처럼, 화자도 이미 다른 사람의 손이 탄 탓에
 님 앞에 들어가 애교를 떨지 못하고 쓸쓸히 물러나겠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보면, <동동>은 1월~12월령이 일관되게 이별의 정
 한을 기조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자는 빗(6월), 한삼(11월), 산초나
 무 저(12월) 등을 사용하고, 약초(5월), 황화(9월), 화살나무(10월) 등으로
 약재를 만드는 여성 인물이다. 님은 등불(2월), 만춘(궁)의 진달래꽃(3월),
 오지 않는 피꼬리 새(4월) 등에 비유되고, 만인을 비추고(2월), 남이 부러
 위할 모습이고(3월), 천년을 장수할(5월) 최고위층의 보좌역으로서 촉망
 받는 녹사(4월) 벼슬의 남성 인물이다. 그런데 화자는 여러 사람의 손이
 탄 탓에 진상할 소반에 올리지 못하는 산초나무 저처럼(12월) 다른 사람
 의 손이 닳지만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잠시나마 쫓
 기를(6월) 기원한다. 이로 볼 때, 작품의 화자는 기녀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해석은 <동동>의 선어가 화랑, 국선, 향가의 맥락에서 이해되
 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 향가는 원래 ‘시송(詩頌)의 부류’⁷³⁾라
 고 규정될 만큼 송축의 주제가 많았는데, 이 작품에서 님을 송축하는 내
 용이 많은 것도 그 영향하에 있는 것이다. 향가의 송축성은 왕족 또는 귀
 족의 자제인 화랑에 대한 찬미의 노래가 많은 까닭이기도 한데, 이 작
 품에서도 고위층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젊은 귀족 자제를 찬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한 기녀로 추정되는 시적 화자는, 예컨대 김유신과 천관 이
 야기에서 <천관원사>를 지었다고 하는 유희(遊花) 천관과 신분적, 주제
 적 연관이 있는 것처럼, 향가와와의 관련성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렇듯 <동동>에 나타난 화자의 일관된 주제 의식 및 정서는 향가가
 지닌 개인 서정시로서의 성격과 상통한다. 결국 <동동>의 선어란 앞 장
 에서 추출한 몇 가지 의미와 함께 여기서 살핀 송축의 주제와 개인 서정

73) 『삼국유사』 5권, 감통, 「월명사도술가」, 羅人尙鄉歌者尙矣 蓋詩頌之類歟.

시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지칭한 말이라고 하겠다.

5. 결 론

본고는 『고려사』에 기록된 <동동>의 선어에 대해 신라에서 고려로 이어진 화랑, 국선, 향가의 전통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보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화랑, 국선, 선 등은 신라의 전통적인 선도를 바탕으로 역사적, 제도적으로 수립, 전개된 일련의 인간 집단 및 그 활동을 지칭한다. 역사적 맥락에서 선도를 담당한 선의 무리가 제일 먼저 있었고, 그들의 주장인 선화가 국선과 유사한 뜻을 지니다가 제도 창설 이후 화랑과 풍월주가 공식적인 용어가 되었다. 진흥왕 원년부터 신문왕 원년까지 지속된 화랑은 진지왕대 잠시 국선이 된 적이 있었고, 신문왕대 이후는 국선으로 바뀌어 신라 말까지 존속하였다.

고려는 주로 문화 활동의 면에서 신라의 화랑 제도를 계승했는데, 그 자취는 민적이 국선이 된 사례가 나오는 13세기 말까지도 보이고 있다. 이때는 곧 고려 가요가 궁중 악으로 편입된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고려 가요 <동동>의 선어를 화랑의 전통에서 찾는 것은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에 화랑의 활동과 관련하여 <동동>의 선어에 내포된 의미를 찾아보았다. 첫째, 신라로부터 고려로 이어진 세시 풍속을 배경으로 정서를 표현하였다는 점, 둘째, 명절 음식과 보약을 통해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있다는 점, 셋째, 순환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님을 송축하거나 그리움을 토로하고 있다는 점, 넷째, 향가의 율격과 형식이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

등이 선어라는 용어의 의미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또한, <동동>의 시어 중 ‘므슴다’(무슨 탓), ‘錄事’(문하녹사), ‘새셔’(초가지붕), ‘브룻’(화살나무), ‘두퍼 누워’(덮어 놓아/두어), ‘소니 가재다’(손이 나란히 한 탓) 등을 다시 해석하였다. 이로써 1월~12월령이 일관되게 이별의 정한을 기조로 함을 알 수 있다. 작품의 화자는 다른 사람의 손이 탄 상태에서 최고위층의 보좌역으로서 촉망받는 녹사 벼슬의 님을 그리워하며 기회 있을 때 잠시나마 좇고 싶어 하는 기녀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도 선어가 화랑, 국선, 향가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향가에는 원래 송축의 주제가 많았고, 이는 왕족 또는 귀족의 자제인 화랑에 대한 찬미의 노래가 많은 까닭이다. <동동> 역시 고위층으로의 상승이 기대되는 젊은 자제를 찬미하는 송축의 주제가 두드러진다. 이와 함께 향가가 지닌 개인 서정시로서의 성격은 <동동>에서 화자의 일관된 주제 의식과 정서에서 드러나는 것과 상통한다.

결국 <동동>의 선어란 신라의 화랑이 주 담당층이었던 향가의 영향하에 나온 개인 서정시로서의 성격을 지적한 말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 조동원 외 공역, 『고려도경』, 황소자리, 2005
- 동아대 고전연구실 역, 『고려사』, 태학사, 1987
- 경상한문학회 연구회 역, 『대동운부군옥』, 소명출판, 2003
- 이석호 역, 『동경잡기』, 대양서적, 1978
- 유재영 역, 『보한집』, 원광대학교출판국, 1981
- 정구복 외 역, 『삼국사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1999
- 『삼국사절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6
- 강인구 외 역, 『삼국유사』, 이회문화사, 2002-2003
- 『신증동국여지승람』, 민족문화추진회, 1985
- 유재영 역, 『파한집』, 일지사, 1978
- 이병훈 역, 『해동고승전』, 을유문화사, 1983
- 신재홍 역, 『화랑세기』, 태학사, 2009
-
- 김명호, 「고려가요의 전반적 성격」, 『한국시가문학연구』, 신구문화사, 1983, 67~80쪽.
- 김완진, 「고려가요의 물명-국어학적 고찰」, 『항가와 고려가요』, 서울대출판부, 2000, 331~356쪽.
- 남광우, 「고려가요 주석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고려시대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1975.
- 박노준, 「동동의 한 이해」, 『고려가요의 연구』, 새문사, 1990, 300~320쪽.
- 박병채, 『고려가요 어석연구』, 선명문화사, 1968, 1~430쪽.
- 박진태, 「동동과 쌍화점의 구조」, 『대구어문논총』 2집, 대구대, 1984, 57~74쪽.
- 박혜숙, 「동동의 님에 대한 일고찰」, 『국문학연구』 10집, 효성여대, 1987, 77~96쪽.
- 서재극, 「노래 동동에서 본 고려어」, 『고려시대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1975.
- _____, 「여요 주석의 문제점 분석- 동동·청산별곡을 중심으로」, 『어문학』 19집, 한국어문학회, 1968, 1~10쪽.
- 신복룡, 『한국정치사』, 4판: 박영사, 2003, 1~486쪽.
- 신은경, 「동동의 형성과정 및 작자층에 대한 재검토」, 『국어국문학』 123집, 국어국문학회, 1999, 37~55쪽.

- 신재홍, 『이상곡의 분절과 해석—향가와 관련하여』, 『국어교육』 140집, 한국어교육학회, 2013, 183~205쪽.
- _____, 『화랑의 순유와 향가』, 『중세 여행 체험과 문학교육』, 월인, 2012, 39~60쪽.
- _____, 『향가의 미학』, 집문당, 2006, 1~586쪽.
- _____, 『향가의 해석』, 집문당, 2000, 1~526쪽.
- 안동준, 『고려노래 ‘선어’와 민간전승 도교음악』, 『배달말』 29집, 배달말학회, 2001, 167~183쪽.
- 양주동, 『여요전주』, 을유문화사, 1955, 1~462쪽.
- 엄국현, 『동동 연구』, 『인제논총』13, 인제대, 1997, 11~52쪽.
- 이도흠, 『고려속어의 구조분석과 수용의미 해석』, 『한국사가연구』 1집, 1997, 361~391쪽.
- 이영태, 『동동의 송도와 선어』, 『민족문화사연구』 36집, 민족문화사학회, 2008, 8~28쪽.
- 이혜구, 『고려의 동동과 돈황곡 십이월상사』, 『한국음악서설』, 4판; 서울대출판부, 1982.
- 임기중, 『고려가요 동동고』, 『고려가요연구』, 정음문화사, 1984.
- 임재욱, 『11·12월 노래에 나타난 동동 화자의 정서적 변화』, 『고전문학연구』 36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5~27쪽.
- 정병욱·이어령, 『고전의 바다』, 현암사, 1977.
-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979.
- 조규익, 『송도 모티프의 연원과 전개양상』, 『고전문학연구』 32집, 2007, 35~57쪽.
- 최미정, 『죽은 님을 위한 노래—동동』, 『고려가요·악장연구』, 태학사, 1997.
- 최재남, 『상부가로서 동동의 상실체험』, 『경남어문논집』 6집, 경남대 국문과, 1993.
- 최진원, 『국문학과 자연』, 증보판; 성균관대출판부, 1981, 1~270쪽.
-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1992, 1~2726쪽.
- 허남춘, 『국중악과 송도』, 『고려가요·악장연구』, 태학사, 1997.
- 황병익, 『동동 ‘새서가만호애라’와 한림별곡 ‘명소년(鄭少年)’의 의미 재론』, 『정신문화연구』 109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117~138쪽.
- _____, 『동동 송도지사 개효선어의 의미 고찰』, 『고전문학연구』 37집, 한국고전문학회, 2010, 33~69쪽.

ABSTRACT

Interpretation of 'Seoneo' and *Dongdong*

Shin, Jae-hong

Dongdong, one of songs in *Koryeo* dynasty, could be more exactly understood by correct knowing of 'Seoneo' which is a term written in the history book, *Koryeosa* to explain the song.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meaning of 'Seoneo' in the point view that the term is related with 'Hwarang, Gukseon, Seon' etc. which had been used widely in *Silla* & *Koryeo* dynasty and explained on the base of lyric history of the same period.

The terms related 'Seoneo' which were written confusedly in several history books published in *Koryeo* and *Joseon* dynasty are arranged like this. The people's group who served *Silla*'s traditional god was called 'Seondo'. And the leader of that group was called 'Seonhwa'.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Seonhwa' and 'Gukseon' was used together with almost same meaning. After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 'Hwarang' and 'Pungweolju' became public terms. From the reign of *Shinmun*-king to the last period of *Silla*, 'Gukseon' substituted for 'Hwarang'. In the period of *Koryeo* dynasty inherited the former dynasty *Silla*, the terms were used with similar meanings or functions, except of confused using and additional meanings.

By this view it is precise that 'Seoneo' is a term which have meanings related *Hwarang*'s cultural customs flowed from *Silla* to *Koryeo*. Therefore we can abstract the meanings of 'Seoneo' which was selected to explain the song of '*Dongdong*' through connecting to *Hwarangs*' behaviors, consciousness, customs etc. The meanings of 'Seoneo' are like these: emotional expressions from the background of seasonal customs, pray for lover's health with foods and medicines, blessing and longing on the base of circular world view, and influence of *Hyangga*, a lyric genre

of *Silla* dynasty.

Besides, we reinterpreted the words and phrases of *Dongdong* to show personal lyric characteristics of the song. By several reinterpreted words and phrases the poetic meaning of the song have been reconstructed. So it is appeared that *Dongdong* is a poem to express female speaker's mind longing for her lover but obliging to withdraw from him. In short, '*Seoneo*' of *Dongdong* is a term with meaning of *Hwarang's* word or *Gukseon's* word and with this term *Dongdong's* characteristics of personal lyric can be explained precisely.

Key Words *Seoneo*, *Hwarang*, *Gukseon*, seasonal customs, reinterpretation of words and phrases, characteristics of personal lyric

논문투고일 : 2014.3.31

심사완료일 : 2014.5.24

게재확정일 : 2014.6.2